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5, 3부

열왕기상 19-20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성품에 대한 질문은 이 두 번째 구원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고문들이 “우리가 왜 그 전투에서 패했는지 아십니까?”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곳 사마리아 언덕, 그 산간 지방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는 분명히 그 언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음 번에는 들에서 싸우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기서는 힘을 갖지 않으실 것이다.

물론, 야훼는 산의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문제는 여호와가 누구냐는 것이다. 그것이 갈멜산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동쪽 아벡 평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끝없는 질문입니다. 야훼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여호와와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 여호와와는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나인가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존재와 행동과 생각의 근원이십니까? 아니면 그는 토끼발, 행운의 부적, 비상시에 서랍 속에 보관할 누군가인가? 야훼는 누구인가? 그것이 아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의 중간 부분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아마도 엘리야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라.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생각하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문들은 벤하닷에게 그의 군대를 평평한 지역, 평평한 지역에 배치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그에게 흥미롭게도 32명의 왕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32명의 지휘관을 확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는 정복하기에 더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수천, 수천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27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집되어 식량을 받았을 때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마리의 작은 염소 떼처럼 그들 맞은편에 진을 쳤고, 아람 사람들은 그 들판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도 불평등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시리아 왕은 자기가 아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는 전투에 유리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편성했고, 많은 병력을 모았습니다. 내 말은, 끝났어. 한 가지만 빼고 끝났습니다.

여호와여,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끝났어.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는? 실제로 당신은 그에게 자신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당신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Paul은 말합니다. 예.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엄청난, 엄청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 거대한 시리아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아벡 성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성벽이 그들의 무리 위에 무너져 죽었습니다.

마침내 두 번이나 아합과 대결하게 된 왕 벤하닷이 그를 두 번이나 모욕했습니다. 벤하닷은 도시의 가장 안쪽 방에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가 도시 안쪽에 있는 골방임을 강조한다.

그는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주목해 보세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족속의 왕들이 말하기를, NIV는 자비롭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 한 단어로 영어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흠.

우리가 어떻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흥미롭지 않나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은혜롭게 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친절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합에서도요. 아, 아, 우리나라가 생각나네요. 일주일 뒤인 2021년 1월에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에 대한 비극적인 폭동, 나는 25년 전 한 젊은 러시아 남자가 나에게 했던 말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방을 들고 차로 가던 중 그는 "나 미국에 다녀왔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아, 정말요? 그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캔자스시티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아, 미국인에 대해 나에게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화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런 문화가 제기됐다. 이 문화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상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요.

주변에 경찰이 있든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0년, 60년, 70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플라이휠, 즉 신에 대한 집착을 회복하지 않으면 추진력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바퀴가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처럼 행한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 오는 내용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이지는 않습니다. 암묵적입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니, 아합. 전리품은 승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자비를 베풀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벤하닷은 하나님의 백성의 화해할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벤하닷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벤하닷 왕이 성중에 있습니다. 오, 진짜? 그는 아직 살아 있나요? 그는 나의 형제이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여기 내 마차로 올라오너라. 나는 기꺼이 당신에게 다메섹의 시장 공간을 주겠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너희에게서 빼앗은 땅을 나는 기꺼이 돌려주겠다. 글썄요, 정말 멋지군요. 언약을 맺읍시다.

왜 안 돼? 아합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시리아인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오랫동안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은혜롭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기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기로 나를 치십시오.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호와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우와. 그는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나를 공격해라. 그 사람은 알았어라고 말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지자는 가서 길가에 서서 왕을 기다렸다.

요즘 우리들처럼 마스크를 쓰고 머리띠를 눈 위로 끌어내려 변장했습니다. 왕이 지나가자 선지자가 그를 불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후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군인 중 한 명이 매우 귀중한 죄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을 지키십시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부상을 입었지만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동안 그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또 제가 이것저것 하는 동안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동안,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 동안 그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당신은 이것을 스스로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을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이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이니라.

음침하고 화가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문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합에 관해 뭔가를 말해 줍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면 재발이 있습니다. 그의 성경적 믿음에는 숙취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이교도였다면 그는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뇨, 아뇨, 그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침울하고 화를 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악랄하게 행하실 때 아합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아합은 벤하닷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생각에 20장의 전체 요점은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일과 여호와의 뜻에 대해 진정한 진심 어린 민감성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적에게서 구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고, 사실 그 사람은 아합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야훼가 하나님을 배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야훼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손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 구렁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은 바로 나 자신이며, 우리의 삶은 영원히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